

탄소 중립과 생태 위기 시대의 율기 읽기:

소발의 담화를 중심으로(율 11-12)

박혜경*

1. 들어가며

오늘의 이상 기후 현상은 지구 온난화를 넘어선 논의로 이어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열대화’로 공포스러운 기후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경고하였다.¹⁾ 만약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기후 재앙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해수면 상승과 지구 사막화와 같은 현상은 인간들의 무절제한 개발로 인한 자연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이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전에 상상하지 못한 ‘지구 열대화’라는 재앙에 직면하고 있다. 2023년 여름, 사람들은 폭염과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구가 인간에 의해 먼저 고통 받은 결과이다. 성서 속에서 고난을 극복한 율의 이야기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다. 율의 고난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전통적인 주제 외에도, 율기에서는 다양한 주제들이 시대와 문화, 상황에 맞게 다루어져 있다.²⁾ 그래서 율기연구에서 이뤄진 생태신학 논문들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오늘

* 대만장영대학교 부교수, 구약학

1) 최서언, “유엔 ‘지구, 온난화 넘어 열대화 진행’...국제사회에 경고” 『경향신문』 (2023. 8. 2).
2) 율기를 시대적 상황과 함께 읽으려는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김수정, “데면데면, 비데면, 대면-메타버스 (Meta-Verse) 시대에 다시 읽는 율기,” 『Canon&Culture』 16:1 (2022), 145-182; 김선종 “율과 멜랑콜리아 -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율 10:1상 『새번역』), 『구약논단』 26:4 (2020), 8-36. 조한근 “율기에 나타난 토지 독점에 따른 경제 정의의

날의 탄소 중립과 생태 기후 위기 상황에서 욥기 11-12장을 읽고자 한다.

우택주는 2009년에 “기후붕괴와 구약신학적 응답”³⁾을 발표하였다. 창세기 1장(제사장 문서)과 2장(J기사 문서)의 창조 이야기와 욥기 38-41장에서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통해 구약신학의 생태학적 대응을 제시 한다. 또한 왕대일은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욥 38:33a)”⁴⁾라는 논문에서 욥기 38-41장의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문학의 통찰력을 강조한다. 지혜문학 속의 창조신학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비판하며 조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⁵⁾ 필자는 이러한 연구들의 학문적 기여도에 힘입어 욥기 11-12장이 보여주는 생태학적 담론에 집중하고자 한다. 욥은 자연이 주는 지혜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격려한다. 욥기 11-12장은 오늘날의 생태 위기와 기후 변화에 신학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성서적 전거를 제시한다.

본 논문은 오늘날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욥기를 읽기 위해, 생태신학과 탄소 중립에 대한 국제적 현상과 도킨스(R. Dawkins)와 같은 생물학자들의 이론을 함께 다루기로 한다. 성서에 나타난 욥의 메시지를 생태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이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생태적 이해와 인식론적 해석 및 실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필자는 탄소중립이 지구 공동체의 중요한 과제임을 자각하면서, 생태학적 문해력의 기여도에 주목하며, 욥기의 생태학적 함의를 강조한다.

본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오늘날의 탄소 중립을 통한 생태학적 담론과 성서적 기록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탐구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소말의 연설과 욥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욥기 11-12장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여 생태학적 해석을 시도한다.

공공성 파괴 원인 연구 - 욥기 24:1-12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6:1 (2020), 60-91;

구자용, “아예, 동물의 주 신학적 동물학에 대한 소고”, 「구약논단」 21:2 (2015), 205-235.

3) 우택주, “기후붕괴와 구약신학적 응답”, 「복음과 실천」 44 (2009), 39-63.

4) 왕대일,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욥 38:33a)- 창세기 창조 신앙에 대한 지혜문학의 반성 욥기 38-41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7:1 (2013), 103-129.

5) 왕대일,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116.

11장에서 소발은 사람들의 하나님 능력에 대한 무지를 강조하며, 이는 마치 하나님에 대한 문맹이라 칭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자연 앞에서 겸손히 지혜를 구해야만 한다. 12장의 욕은 자연인으로 명명될 수 있으며,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욕의 지혜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욕기 11-12장은 오늘의 현대인들에게 생태학적 성서읽기를 선사한다.

2. 생태신학 인식과 성서 읽기

2.1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그리고 성서읽기

지구의 평균 기온이 섭씨 2도 오를 때, “육지의 20-30%가 사막화될 것이며 1.5도로 제한하면 그 지역의 3분의 2가 사막화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⁶⁾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자각하며,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유엔은 200여 개국이 참여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자 회의(The 26th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the Parties/COP 26)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하여 ‘글래스고 기후 협약(The Glasgow Climate Pact)’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DC)에 집중하며, 화석 연료 의존도 감소,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을 위한 기후 금융 증대, 세계 탄소 중립 시장 규제 등에 관한 것이다.⁷⁾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시대 이전 대비 섭씨 1.5도를 넘지 않기로 서약하였으며, 100개 국가는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수준의 30%로 감소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에 따라 모인 회장단은 “배기가스 배출량 감소, 기후 변화로 영향 받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 및 국가별 기후 목표 전파, 더 큰 조치를 위한 협력”⁸⁾에 동의하였다.

6) 채영근,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법학연구」 25:4 (2022), 68.

7) “COP26: What’s in the Glasgow Climate Pact?” (2022. 12. 1). <https://www.aljazeera.com/news/2021/11/14/cop26-whats-in-the-glasgow-climate-pact>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고 있는 지구 구성원들과 공동체들은 지엽적으로 발생한 전염병이 전 세계의 공동된 문제가 되고,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이 요청됨을 직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태학적 관심사에 부합하고 해결책을 추구하면서, 세계교회협의회(WCC)도 COP 26의 결정 사안에 대한 실천을 촉구하며 전 세계에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의 집인 지구상의 생명과 우리를 위협하는 이전에 없던 도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형제애로 하나로 연합합니다.”⁹⁾ 프란시스코 교황은 2019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신학이 발전되기를 강조하였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이전의 선대 교황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환경을 이해하였다. 그는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 생태 위기가 발생한 것이 아님을 피력하면서, 이러한 자연 현상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어떻게 더 가깝게 이끄는지”에 초점을 맞춘 신학이 발전되길 요청하였다.¹⁰⁾ 자연 생태계는 하나님과 대화의 장을 열어주는 생태신학의 발전을 필요로 하며 생태신학의 정립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성서 신학의 기여도가 중요하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성서를 읽기는 성서 해석 방법론의 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헤블(N. C. Habel)은 1990년부터 ‘지구성서(The Earth Bible)’ 프로젝트의 원칙을 제정하고, 미국성서학회에 ‘생태해석학 분과’를 설립하여 지구성서 시리즈를 출판하고 있다.¹¹⁾ 헤블의 해석학 원칙은 지구와 연대하는

8) “COP 26 The Glasgow Climate Pact” in COP26-Presidency-Outcomes-The-Climate-Pact.pdf, (2022. 12. 1). <https://www.ukcop26.org>

9) “Faith and Science: An Appeal for COP26,”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2022. 12. 1). <https://www.oikoumene.org/resources/documents/faith-and-science-an-appeal-for-cop26>.

10) M. Silk, “Pope Francis Pushes a New Theology of Climate Change,” *Religion News Service* (2022. 12. 1). <https://religionnews.com/2019/09/03/pope-francis-pushes-his-climate-theology>.

11) N. C. Habel, “Ecological Criticism,” *New Meanings for Ancient Texts: Recent Approaches to Biblical Criticisms and Their Applications*, eds., S. L. McKenzie and J. Kaltner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3), 39-58. 헤블은 지구성서주석서(The Earth Bible Commentary)를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창세기 1-11장, 요한복음, 전도서, 시편, 골로새서, 사도행

성서 읽기를 강조한다. 이는 지구의 생물과 환경과 공감하며, 사람들이 자연과 동일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해방신학이 발전하던 시기에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해방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억압당하는 모든 이들의 해방에 관한 담론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헤블은 출애굽의 갈대바다 사건을 단순히 인간의 해방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독자와 나일 강을 동일시하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읽어내고자 한다.¹²⁾ 헤블은 나일 강이 피로 변한 상황에 주목한다.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할 때, 나일 강은 악행을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 강물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멸종하며 악취로 가득 찼다. 헤블은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라는 구절(참조, 출애굽기 7:19-20)에 주목하여 해석한다.¹³⁾ 바로가 받아야 할 심판이 나일 강에 대신 내려졌다. 헤블은 자신을 나일 강과 동일시하면서 악마화된 나일 강에 대해 논의한다. 억압자였던 바로가 심판을 받을 대상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일 강이 저주를 대신 받게 되었다. 나일 강은 생명을 공급하는 강물에서 사망의 강물로 변화되었다. 나일 강은 바로 대신 억울한 ‘억압자’가 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나일 강을 출애굽 이야기의 배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헤블은 나일 강을 자신과 일체화시켜 인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과 동일시된 자연은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고통에 반응하게 된다.

나일 강은 죄가 없다. 욕이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죄 없고 선량한 나일 강도 피로 얼룩지게 되었으며, 생명을 품을 수 없게 되고 자신도 생명을 잃게 되었다. 오늘날의 자연도 선량하지만

전, 요나서, 히브리서, 룻기 등을 출판하였다. 또한 헤블은 지구성서 시리즈로 *Rea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Earth* (Sheffield, Englan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The Earth Story in Wisdom Tradition* (Sheffield, Englan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The Earth Story in the Psalms and the Prophets* (Sheffield, Englan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등을 편집했고 *Exploring Ecological Hermeneutic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8)도 발간했다.

12) Habel, “Ecological Criticism,” 52-54.

13) Habel, “Ecological Criticism,” 53-54.

사람들의 무분별한 산업 발전과 무관심으로 인해 파괴되었고 위기에 빠졌다. 자연은 ‘전 지구 열대야라는 기후 재앙으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듯하다. 성서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읽는다면, 사람들의 무관심에서 벗어나 자연을 회복시키고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2 생태학적 문해력

현대의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읽는 능력을 넘어 우리 주변의 문화적 양상과 생태적 가치를 인식하는 다양한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능력에 대한 논의¹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생태학적 문해력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지구의 일원으로서 사람들은 지구가 제시하는 신호와 현실에 대응해야 한다. 생태학적 문해력은 생태계의 위기와 기후 변화를 다루며 환경 보전을 위한 적절한 대안과 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환경 교육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발전해왔으며, 생태학적 문해력은 급진적인 재구성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것이다.¹⁵⁾ 기독교인들은 생태학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보전이 지니는 의미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대한 질서 보전은 태초에 대한 회상으로써 가능하다.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창조에 대한 불꽃을 다시 재건하고 태초에 대한 명상을 가능하게 하는 회상의 페다고지(pedagogy of anamnesis)로 창조

14) 한 예를 들어, 영국 의회는 언론인들이 종교적 고정관념을 버리고 종교적 문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소통이 중요한 화두인 언론인들에게 협소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문해력을 상실한 채 종교를 이해할 수 없다면, 오히려 혼동과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현대인들은 종교와 함께 중요한 현상을 간파하고 대안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이미경, “‘뜻 의회단체 ‘언론 종사자, 더 큰 종교적 문해력 요청돼,’” 「기독일보」 (2022. 11. 30). <https://www.christiandaily.co.kr/amp/news/102787>.

15) R. V. Kahn, *Critical Pedagogy, Ecoliteracy, & Planetary Crisis: The Ecopedagogy Movement* (New York: Peter Lang Publishing, 2010), 11.

질서가 재발견 될 수 있다.¹⁶⁾ 만약 창조된 상태를 벗어난 과도한 산업 발전이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생태학적 위기를 인식하고 이상 기후 현상이 멈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태 신학적 문해력을 높이면서 윤기가 강조한 자연 중심의 지혜로 회귀해야 한다. 지혜 문화는 유대인 전통에서 케투빔으로 분류되며 일상생활에 지침을 제공한다. 윤기도 오늘날의 상황에 발생하는 생태학적인 문제에 응대하는 전거를 보여준다.

또한, 탄소 중립에 대한 이해로써 생태학적 문해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탄소 중립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가능한 한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나머지 배출량은 대기에서 재 흡수될 것”¹⁷⁾을 의미한다. 파리 협정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정하였다.¹⁸⁾따라서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 발표는 생태학적 문해력의 중요한 기점이 된다. 탄소 중립에 대한 인식은 지구 보전을 위한 의지를 나타내며 생태학적 문맹에서 벗어나는 지표로 작용한다. 탄소 중립에 대한 인식은 우리 스스로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 보전의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며, 생태학적 문맹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 구현은 서약서 작성을 통해 시작된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서약이 증가되고 있다. 기업, 투자자, 도시와 같은 비 국가 기관들은 탄소 중립을 향한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표준을 개발하고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그룹을 설립하고 있으며, COP 27(2022년 11월 8일)에서는 권장 사항들이 소개되었다.¹⁹⁾ 탄소 중립에 대한 열정을 기울이고 서약서를 작성하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16) A. Wright, *Christianity and Critical Realism Ambiguity, Truth and Theological Literac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3), 25.

17) “For a Livable Climate: Net-zero Commitments Must be Backed by Credible Action,” *United Nations: Climate Action* (2022. 11. 30). https://www.un.org/en/climatechange/net-zero-coalition?gclid=Cj0KCQiAm5ycBhCXARIsAPldzoWdKsXu8cH16keusDH3Yja8ueEcCHHgk3IM6Nwkq117TYmvTcOxOkEaAow9EALw_wcB.

18) “For a Livable Climate”.

19) “For a Livable Climate”.

전 세계적인 공론화를 통해 이뤄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윤리적 책임은 매우 크다.

이미 1960년대에 화이트(L. White Jr.)는 기독교인의 생태 위기에 대한 윤리적 책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인간 중심적인 서양식 기독교가 애니미즘을 배격하면서 자연 파괴에 대해 무관심했다고 지적한다.²⁰⁾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생산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착취가 증가되었다. 이는 이상 기후 현상을 초래하고 특정 동물의 멸종까지 이어졌다. 린 화이트가 지적한 전통적인 서양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내 생태계 보전에 무관심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과학과 기술이 점목되면서 생산성을 중시하다보니, 자연은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 린 화이트의 이러한 비판에 귀 기울이면서 창조신학의 재정립은 중요 담론이 되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적 근거를 입증하려는 것도 아니며, 고대 근동 바벨론 신화의 파괴적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창조의 신비와 창조 질서를 보존함으로써 사람들은 “창조자와의 상호적 사랑의 관계에 자유롭게 진입”²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보답하며, 창조물의 보호와 자연의 보존을 위해 탄소 중립 시대에 생태 신학적으로 응답할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창조질서보전’²²⁾을 위한 WCC의 노력을 1983년 밴쿠버 회의 이후로 꾸준히 추진해왔다. 특히 1990년 서울 회의에서는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전(JPIC)”이라는 주제가 다루어졌다.

이러한 담론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20) L. White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New Series* 155 (1967), 1203-1207.

21) Wright, *Christianity and Critical Realism Ambiguity*, 158.

22) WCC는 1983년 밴쿠버 회의 이후로, 지구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1990년 서울회의에서는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전(JPIC)’이 주제였다. M. Robra, “It Was Prophetic for the WCC to Focus on Climate Change Already in 1990,”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2023. 4. 10). <https://www.oikoumene.org/news/it-was-prophetic-for-the-wcc-to-focus-on-climate-change-already-in-1990>.

생태 신학적 문해력을 강화해왔다. 욕기는 창조의 질서와 자연의 순리를 강조하는 지혜의 담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에 대한 성서적 응답의 지평을 제시한다. 창조 시점에서 인간의 무능함과 현대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성을 인지하는 것이 생태 신학적 문해력의 핵심 주제이다.

2.3 욕의 고난과 하나님의 창조관, 그리고 생태 공동체

욕의 갑작스런 변고는 오늘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원인을 알기 어려운 바이러스에 전염된 사람들은 지난 수년간 고난당했다. 생명과 가족을 잃고 심각한 우울감에 빠지고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해 근본적으로 질문하기도 한다. 코로나 19로 고난당할 때, 우리는 욕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말씀에 집중한다.

이렇게 고난당하는 욕을 향해 하나님은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신다(욕 38-41). 창세기 이외의 성서에서 하나님의 창조관을 가장 자세하게 묘사한 부분은 욕기 38-41장이다. 좀 더 자세히 나눠 보면, 38장과 39장은 우주, 기상, 동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40-41장은 신화와 베헤못, 리워야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²³⁾ 현대의 맥락에서 바라보면, 욕기 38-41장에서 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주 탐사, 천문학, 기상학, 동물학, 고대 신화 그리고 심지어 컴퓨터 게임의 소재까지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내용을 다룬다. 이 모든 분야에 통섭하신 하나님 앞에서 욕은 자신이 선량하다는 주장을 펼친다(욕 28-31장). 하나님은 이러한 욕에게 위로²⁴⁾의 말씀 한마디 없이, ‘나는 너를 간파 한다’²⁵⁾는 식으로 대답한다. 하나님의 무관심은 욕에게 재물과 가족을 잃은 것 이상의 절망이었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억울함을 호소

23) K. Schifferdecker, “The Book of Job,” *The Oxford Handbook of The Bible and Ecology*, eds., H. Marlow and M. Har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184.

24) 왕대일,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108.

25) Schifferdecker, “The Book of Job,” 184.

하는 욥에게, ‘자연의 섭리와 창조 질서를 깨달아라’라고 말하며 창조 질서에 대한 연설로 응답한다.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연설은 욥에게 겸손함을 심어준다. 터커(G. Tucker)는 성서 전통에서 ‘인간이 자연 질서의 정점에 있다’는 생각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한다.²⁶⁾ 또한 욥기 38-39장은 린 화이트가 비판했던 전통적 서양 기독교 사고에서 나오는 생태 경시 사상을 명백히 거부한다. 이 부분은 지혜 문학이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비판하고 그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의 전통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²⁷⁾

욥기 38:25-30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홍수 중에 물길을 열어주시고, 번개와 우레의 길을 만들어주시며, 비를 내리시고, 초목을 자라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로써 하나님은 자연 현상을 조절하며 생명을 유지하고 지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수력 댐을 건설하는 기술이 있을지라도,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업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모든 기술은 무용지물이다.

현대에는 산업공해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북극 빙산이 녹는다. 가뭄이 더욱 심해지고 예상치 못한 폭설이 발생하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눈 가뭄”²⁸⁾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상 기후 상황에서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창조의 섭리와 조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욥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고백을 통해, 이러한 원칙이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적용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욥의 고난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정의와 해방을 위한 사회적 이슈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신학자인 구티에레즈

26) G. Tucker, “Rain on a Land Where No One Lives: The Hebrew Bible on the Environment,” *JBL* 116:1 (1997), 12.

27) Tucker, “Rain on a Land,” 13.

28) 강건택, “[특과원 시선] 온난화에 눈 없는 뉴욕시…역대 최장 '눈 가뭄' 코앞” (2023. 1. 23). <https://v.daum.net/v/20230122070707719>.

(G. Gutiérrez)는 “남미 상황에서 하나님 이야기의 의미를 찾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말하자면, 대다수의 사람들의 고통”²⁹⁾에 주목하면서 옴의 이야기를 해석한다. 이로써 옴의 고통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양상을 포함하게 된다.³⁰⁾ 옴의 경험은 고난 받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공동체의 정의와 불평등 문제를 강조하며, 가난한 이들의 고통에 주목하게 한다. 옴은 선량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 마찬가지로, 남미 지역의 무고한 가난한 사람들도 사회 구조의 모순과 불평등 속에서 고통을 겪는다.

현재 지구에서는 환경 변화와 생태학적 위기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약소국가의 국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선진국의 고도의 산업 발전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OP 26(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빈곤 국가들을 향한 재정적 지원을 강조하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주요 강대국 회원국들은 적어도 2019년의 두 배 이상의 기후 재정금을 2025년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³¹⁾ 개발도상국들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지구 공동체 차원에서 ‘손실과 피해’라는 생태학적 정의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³²⁾

29) G. Gutiérrez, *On Job: God-Talk and the Suffering of the Innocent*, trans. Matthew J. O’Connell (Maryknoll, NY: Orbis Books, 2005), xviii.

30) 예를 들어, 옴기 29:12, 16a 17에서는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 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빈곤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한다. Gutiérrez, *On Job*, 39-40.

31) “COP26: What’s in the Glasgow Climate Pact?”

32)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 장관의 수중 연설이 방영되었다. 투발루의 물에 잠기는 상황을 직접 보여주며 전 세계인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를 원했다. 그는 투발루의 기후 재앙 원인이 자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호소했다. 참조하라, “바다로 들어가 수중 연설...잠기는 투발루의 기후재앙 호소” 『연합뉴스』 (2023. 1. 10). <https://www.youtube.com/watch?v=09geJT-ZAm4>. 이런 의견에 반대해서, 투발루의 땅 면적이 실제로 확장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참조하라, 최은경, “수몰 위기 투발루, 오히려 면적 늘었네” (2023. 1. 23).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3/2018021300203.html. 그러나 퇴적물로 이루어진 땅

욥은 정의에 대한 세계관을 제시한다(욥 31:5-8). 하나님은 욥 자신의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 본다면 자신이 온전하고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라고 피력한다. 더 나아가 욥은 과거에 그릇된 길로 빠져 악을 저지르거나 잘못 된 사실이 있다면, 그의 생산물을 타인이 먹어도 되며 작물이 망하더라도 항변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면 어떠한 공동체의 정의도 실현되기 어렵다. 욥기 11장은 생명의 날을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한다. 이는 생태 공동체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한다(욥 11:17). 욥기 12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자연에게서 배우는 지혜를 강조한다. 다음 부분에서는 욥기 11-12장의 소발과 욥의 대화를 통해 욥이 말하는 자연 중심의 지혜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소발의 담화(욥 11-12)

3.1 소발의 비판과 욥의 하나님에 대한 문맹(11:1-20)

욥기 38-41장은 폭풍우와 같은 자연 현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다루고 있다. 반면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는 욥기 12:7은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욥은 자연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자연과 소통하며 자연의 순리를 이해하는 현명한 사람으로 묘사된다. 욥기 12-14장³³⁾은 11장에서 소발이 제기한 도발적인 질문과 공격에 대한 욥의 대응을 다루고 있다.³⁴⁾

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해수면 상승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33) 본 논문에서는 욥기 13장과 14장은 지면상의 한계와 상이한 주제이기에 다루지 않는다.

34) 욥과 친구들의 대화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자면, 3장에서는 욥이 이야기하고, 4-5장은 엘리바스가 말한다. 이에 욥은 6-7장에서 대답한다. 그리고 8장에서는 빌닷이 질문하며, 9-10장은 다시 욥의 응답이다. 11장은 소발이 말하고, 12-14장은 욥의 응답이다 (참조

따라서 12장을 읽기 전에 11장에 나타난 소발이 욕에게 했던 연설을 먼저 읽고자 한다.

11장은 1절의 개요 이후에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2-12절에서 소발은 공격적인 논쟁을 전개하며, 그 다음으로 13-20절에서는 조건이 충족될 때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있다.³⁵⁾ 첫 부분에서 소발은 욕의 명성을 비판하며, 욕이 수다스럽게 자랑하기를 즐기는 점에 도전한다. 이 부분은 논쟁 연설의 한 예로, 소발은 길고 장황하게 늘어놓은 의사방해(filibuster) 형식의 연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⁶⁾ 2-6절은 소송을 위한 전형적 양식을 보여주며(참조하라, 욕 8:2-4), 7-12절은 찬양시의 영향을 입었다. 13-20절에서는 의로운 지혜와 악인의 파국에 대한 이야기를 펼친다.³⁷⁾ 소발은 욕이 하나님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며, 또한 하나님이 욕의 악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욕이 회개하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³⁸⁾ 소발의 주장에 따르면, 욕은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욕은 자신의 의로움과 선량함을 주장하며 “나는 주 앞에서 깨끗하다”(욕 11:4)라고 강조한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욕을 깊이 아시고 이해하고 계신다. 소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 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욕 11:6-7). ‘오묘함’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숨겨진 비밀’³⁹⁾에

하라, Collins, *Introduction to the Hebrew Bible*, 526).

35) N. C. Habel, *The Book of Job, A Commentary*, OTL (Philadelphia, PA: The Westminster Press, 1985), 204.

36) D. J. A. Clines, *Job 1-20*, WBC 17 (Thomas Nelson, 1989), 257.

37) R. E. Murphy, O. Carm., *Wisdom Literature, Job, Proverbs, Ruth, Canticles, Ecclesiastes, and Esther*, The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13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1), 29.

38) M. A. Sweeney, *Tanakh: A Theological and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Jewish Bible*,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12), 416.

해당한다. 욥기 28장에서는 11장에서 언급된 ‘오묘함’과 동일한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으며, 한국어 번역에서는 “감추어져 있던 것”으로 번역되었다(욥 28:11). 이 장에서는 땅에 묻혀있던 원석들이 발견되어 밝은 곳에서 제련 과정을 거쳐 보석이 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28장의 비유에서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 보석으로 변모하려면 제련사의 노력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 쉽게 알려지지 않는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며,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함을 나타낸다. 욥기 11장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지혜는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결정, 계시, 그의 보여주심에 달려있다. 소발이 말한 “오묘한 지혜”는 하나님의 명백한 나타남과 비밀스러운 숨김 모두를 포함한다.³⁹⁾ 6절 후반 절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비밀은 욥이 지었던 죄를 잊게 하였다. 욥은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며 자랑하지만, 이로 인해 얻는 의로움은 본질적이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망각의 강을 건너면 의로움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욥에게 도전을 감행하실 때,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⁴¹⁾ 욥은 이 지혜를 깨닫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생태계의 질서 역시 우리에게는 제한적으로 알려질 뿐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생태계를 통해 지구 사막화의 가능성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구 열대화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없다.

소발은 전 우주와 천상, 지상 전 영역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깊은 지식과 웅대함을 강조한다(욥 11:8-9). 우리는 스스로의 지식과 지혜로 생태 환경의 위기가 극복되길 바라지만, 한계가 있다.⁴²⁾ 소발은 사람들이 자연을 통제하고 정복하며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 전달한다.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자연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39) Clines, *Job 1-20*, 262.

40) M. H. Hope, *Job,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YB 15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84.

41) Hope, *Job*, 84.

42) Clines, *Job 1-20*, 263.

광대함과 깊이에 대한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욕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광대함을 언급하여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고 말한다(욕기 9:10).

소발도 욕기 9장의 표현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9장에 대한 응답으로서 11장에서 하나님의 광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편집자들의 비교 연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⁴³⁾ 그러나 이러한 편집 연구는 소발의 신원 연구와도 연관되어 있다. 소발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는 다른 두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마찬가지로 풍부하지 않으며, 나아마 사람으로만 언급되었다(욕 2:11; 11:1). 나아마는 아라비아의 중부나 서부 지역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⁴⁴⁾ 그런데 그의 출신지와는 상관없이 11장 전반부는 소발을 지혜 신학자라고 부르기에 충분하다.⁴⁵⁾ 소발의 지혜에 대한 전문성을 드러내는 11장의 앞부분과는 달리, 후반부에서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지혜와 정의로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욕을 지혜의 길로 초대하고 있다. 소발은 욕이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에 대한 문맹 상태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있다.

11:13-20은 환난이 잊혀지며, 두려움이 사라지는 생명의 날의 도래를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욕이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해 손을 들 때에만 가능하다. “손을 든다”는 호소와 간청을 의미한다.⁴⁶⁾ 소발은 욕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청하길 원한다. 사람들을 가두시기도 하고 재판을 베푸시기도 하는 하나님께 소원을 빌라고 조언한다. 이 재판장 하나님은 최고 권위자를 상징한다. 현대에선 많은 국가들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약식을 가지며 협약을 체결한다. 우리는 지구 공동체의 최고 권위의 장 앞에서 서약하고 간청한다. 만약 하나님이 창조한 생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조약을 하나님과 맺는다면, 환경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슬픔과 죄악된

43) Habel, *The Book of Job*, 205-206. 헤블은 소발의 연설(욕 11:13-20)을 욕기 10:13; 6:29, 30, 10:15 등에 나타난 욕의 연설과 비교 분석하고 있다.

44) “Naamathite” *Bible Odyssey* (2023. 1. 11). <https://www.bibleodyssey.org/glossary/naamathite>.

45) Habel, *The Book of Job*, 208.

46) Clines, *Job 1-20*, 267.

결과를 억제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밝은 낮보다 더 밝아지고, 어둠이 있더라도 아침처럼 밝아질 것이다(참조하라, 욥 11:17). 죄악을 멀리한 정의로운 자들은 생명을 지니게 된다. 이들의 희망은 안녕과 평안으로 이어진다(욥 11:14-18). 그러나 사악한 이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다(욥 11:19). 생태 공동체를 더 이상 보살 피지 않는다는 것은 죄악이다. 이는 창조주의 생태 공동체 내의 질서를 보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지구의 종말이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3.2. 욥, 지혜의 자연인, 짐승과 새에게 물어 보라(12:1-25)

욥기 12장은 구조상 네 부분으로 나뉜다. 1절은 개요를 담고 있으며, 2-6절에서는 욥의 소송이 시작되며, 7-12절에서는 욥이 자신의 지혜에 대한 입증을 이어간다. 그리고 13-25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칭송과 찬양이 펼쳐진다.⁴⁷⁾ 소송 과정과 지혜 형식에 대한 논쟁(2-6절)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양(13-25절)이 함께 있기에 이 장에서는 소송 형식을 가진 지혜 문학과 찬양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 있다. 더불어 이 장은 지혜의 본질을 교훈하고 지혜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⁴⁸⁾ 욥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욥 12:2하)라는 발언은 냉소적이고 풍자적인 표현이다. 더불어 이 발언은 11장에서 소발의 비판에 대한 욥의 응답이자 소송의 시작을 의미한다. 소발은 하나님과 지혜조차 모르는 문맹인으로 욥을 묘사했었다. 그러나 욥은 소발과 그의 공동체를 향해 자신이 가진 지혜의 이해력을 강조한다. 12:2 하반절을 직역하면 “지혜가 너희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로 번역된다. 전치사 ‘임’(עִם/함께)이 2인칭 남성 복수 접미사와 함께 사용되었다. 이는 12:2 상반절의 ‘임’(עִם/백성, 사람들)과 히브리어 단어 플

47) Murphy, *Wisdom Literature*, 29.

48) Murphy, *Wisdom Literature*, 30.

레이로 관련이 있다. 욕은 전치사를 복수형으로 사용하여 개인인 소발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지혜를 관장하는 공동체를 향해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개역개정』은 2절 상반절을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로 번역하고, 『공동번역』은 “참으로 자네들만이 유식하여”로 번역한다. 또한 『새번역』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곤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라고 번역한다. 다양한 번역이 있지만 공통된 생각은 욕이 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지식 독점을 비판한다는 것이다. “너희”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욕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들의 신분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 호프(M. H. Hope)는 ‘암’(אֱמ) / 백성, 사람들)을 상류 사회에 속한 왕권과 사제계급 바로 아래 사람들로 해석한다.⁴⁹⁾ 지혜가 특권층에 의해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욕은 3절에서 자신도 지혜를 이해하는 사람임을 강조하며, 소발의 11장에서의 지혜에 대한 비난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반박 한다. 첫째, 사람 간의 관계에서 욕은 조롱당하거나 웃음거리로 취급되는 대신 “너희”들이 넘어지려는 사람을 돕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더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동을 한다고 지적한다(3-4절). 이들의 지식은 인간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허황된 것일 뿐이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강도 같은 사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평안한 삶을 살며,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여 오만하게 행동한다(참조하라, 『새번역』 욕 12:6). 이러한 지혜 독점 특권층은 인간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며, 진정한 지혜를 알지 못하는데, 오히려 자연에서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다.

7-8절에서 욕은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라고 말하여 동물과 자연이 주는 지혜를 강조한다. 욕은 자연인처럼 지혜를 깨닫는다. 이러한 자연의 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무지함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

49) Hope, *The Book of Job*, 89.

는 역할을 한다.

“짐승에게 물어 보라”에서 히브리어 “물어보라”는 욥 8:8에서 빌닷이 욥에게 말한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라”와 욥 21:29에서 욥의 소발에 대한 두 번째 대답 장면에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에서 사용되었다. 8장의 “물다”는 조상들의 조언을 구하는 의미로 쓰였고, 욥기 21장에서는 사악한 사람들의 운명을 이야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⁵⁰⁾ 두 이야기에서 “물다”라는 표현은 조언을 얻고 미래를 결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욥은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들과 자연 환경에서 조언을 청취하며 지혜를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오늘날, 생태계를 관찰하여, 동물과 식물들의 지혜를 깨닫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면 기후 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구자용은 7절의 동물들에게 ‘물어보라’는 반어적인 질문으로서 친구들을 향한 “욥의 답답함에 대한 표현일 뿐이다”라고 해석한다.⁵¹⁾ 그러나 동물들의 행동은 사람들의 인식을 넘어서는 지혜를 간직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지니고 있기에, 욥이 언급한대로 생태학적 현상을 통해 동물과 자연 환경에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도킨스는 동물들의 행동 양식을 관찰 한 후 『이기적 유전자』를 집필하였다. 동물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후세 준비를 위해 내재된 유전자를 통해서 행동한다는 것이다.⁵²⁾ 그들은 생존을 위해 질서를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태어난다. 예를 들면, 도킨스는 자하비(A. Zahavi)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아기 새들을 공갈 협박범으로 묘사한다.⁵³⁾ 새들은 이미 태어나면서 다른 형제자매와의 경쟁 상황에서 먹이가 부족할 것을 알고 있다. 아기 새들은 포식자인 여우를 부르는 위협을 감수하고 울음소리를 낸다. 짹짹 거리면서

50) P. V. Hecke, *From Linguistics to Hermeneutics A Functional and Cognitive Approach to Job 12-14* (Leiden & Boston: Brill, 2011), 337.

51) 구자용, “야웨, 동물의 주,” 229.

52) R. Dawkins, *The Selfish Gene*, The 30th Anniversary Edition (Oxford, Great Britain: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53) Dawkins, *The Selfish Gene*, 131-132.

‘여우야 여우야, 내가 여기 있어’라고 울게 되면 어미 새가 포식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먹이를 주게 된다. 이것은 아기 새들의 생존을 위한 행동 양식이다. 다른 예를 들어, 군집 생활을 하는 일벌들과 여왕벌에게서 생태계에서도 특별한 질서가 나타난다. 일벌들은 여왕벌을 위해 노동하며 가미가제식으로 번식을 수행한다. 일벌들의 생태계에서는 자신들이 생식하는 것보다는 여왕벌을 섬기며 후대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여겨지는 것이다.⁵⁴⁾ 도킨스가 강조한 이기적인 유전자란 결국 후손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동물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고유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재천은 사뭇 다른 생태계 질서를 주장한다. 이기적인 유전자라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공생의 유전자라는 견해를 제시한다.⁵⁵⁾ 지구상의 식물계와 곤충계가 꽃가루를 옮기고 꿀을 받아먹으면서 서로 도와서 자연계가 생명과 환경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서로를 죽이며 자신만이 생존하는 것이 아닌 대 자연의 질서 유지와 공생을 통해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을 보여준다. 도킨스와 최재천의 이론은 서로 대립적이다. 그러나 동식물과 자연 생태계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대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결론을 같이 한다. 이는 우리가 가진 지식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며, 과학적인 이론을 제시하더라도 옴이 말하는 것처럼 동물들에게 물어본 결론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동물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고백하며 현상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옴은 자연 속의 동물, 식물, 땅, 그리고 물고기가 지닌 하나님 지혜의 질서에 우리를 초대한다.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8절)는 하나님의 창조와 생태학적 작용에 대해 가장 정확한 표현을 담고 있으며,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낸다.⁵⁶⁾ 옴의

54) Dawkins, *The Selfish Gene*, 172-173.

55) 최재천,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2023. 1. 12). <https://www.youtube.com/watch?v=SyGKk2a6OWs>. 참조하라, The AsiaN Editor, “Jane Goodall and Choi Jae-chun: Words for the Next Generation on Humanity and Nature” (2023. 1. 12). <http://www.theasian.asia/archives/99692>.

56) A. M. Sinnott, “Job 12: Cosmic Devastation and Social Turmoil,” *The Earth*

지혜 신학은 질문을 받는 땅, 설명을 하는 물고기에서 나타나기에 생태학적인 관점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상징적 이미지는 의인화된 생태계를 나타내며, 사람들은 이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이다. 이 상징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과 하늘에 대한 이해와도 관련이 있다. 하늘과 땅은 한 쌍을 이루는 개념으로서 수평선 테두리에서 우주적인 물의 유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⁵⁷⁾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고에서 생긴 하늘과 땅에 대한 이해이다. 그래서 고대인들의 사고는 현대 과학적 사고로 보면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상징적으로 의인화 된 땅이 가르친다는 말은 오늘날 과학적 실험 결과로 배우는 상황과 일치된다. 토양오염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⁵⁸⁾ ‘가르치리라’는 히브리어 ‘아라’(אָרָא/가르치다)는 칼 동사로 쓰이면 ‘던지다, 쏘다’ 등으로 번역되고 8절과 같이 히필 동사로 쓰이면 ‘가르치다’로 번역된다. 특히 욥기 8:10과 잠언 4:4에서 히필 ‘아라’는 권위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나타낸다. 땅은 현대 사람들에게 오염의 정도를 가르치며 생태학적인 보전을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를 제안한다. 마찬가지로, 바다의 고기가 설명한다는 구절은 물고기가 오염된 바다 상황을 알려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욥의 해안이다. 땅과 고기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므로, 결국 대 자연의 질서와 생태 공동체의 보존은 하나님의 손으로 진행된다(9절).⁵⁹⁾ 자연 공동체가 인류 공동체와 나누는 지혜는 참으로 풍부하다.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욥은 생명이 하나님에게 약속되어 있으며, 지혜는 노인들에게, 명철은 장수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소발 공동체에게 말한다. 욥은 이어서 12장에서 수사학적인 질문과 교훈 방식으로 계속해서 연설하여

Story in Wisdom Traditions, eds., N. Habel & S. Wurst (Sheffield England: Sheffield Academic Press Ltd., 2001). 81, 78-91.

57) W. Janzen, “Earth,” *ABD* vol. 2 (New York: Doubleday, 1992), 245.

58) 서정욱 외, “폐급속광산지역 토양오염정도와 혈중 납 노출 수준의 상관성” 『한국환경보건의학회지』 48:4 (2022), 227-235.

59) 구자용, “아웨, 동물의 주,” 227; 하경택, “소발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대답: 욥기서 12장 1-25절,” 『설교자를 위한 성경연구』 11:2 (2005), 16.

자신이 하나님과 지혜에 대해 문맹이 아님을 증명하고자 한다.⁶⁰⁾ 오늘 우리는 땅에게 심각하게 말할 때가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지구 평균기온을 상승시키지 않겠으며,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하는 말을 할 때가 되었다.

옅은 자연의 지혜를 강조하며, 자신의 지혜가 누구에게도 열등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13-25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를 찬양한다. 본문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13-16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모든 것을 조종하며 물을 막거나 보내는 모습을 묘사하며, 동물들의 질서와 자연의 규칙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써 자연은 인간들의 섬김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카우프만(G. Kaufman)은 1972년에 신학의 중요한 주제로 자연과의 대화를 지목하며 이에 따라 자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다.⁶¹⁾ 카우프만은 자연과 반대되는 개념들로서 자연의 의미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자연의 상반된 개념으로는 인공적인 것, 은혜, 부당함, 사회적인 행동, 역사와 문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함을 통해 가능한 개념이다. 자연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숭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카우프만은 주장한다. 그 이유는 땅을 뒤집는 지혜의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참조하라, 옅 12:15). 이제 우리는 자연에 상반된 개념으로 오염을 추가할 때가 되었다. 생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을 보존하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

옅 12:17-21에서는 지배자와 상류층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 지혜의 핵심이다. 하나님은 고관들, 재판장들, 왕들, 제사장들, 충성된 자들, 늙은 자들, 귀인들과 강한 자들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옅은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손이 자연을 통해 작용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권력 역시 하나님에게 종속

61) Murphy, *Wisdom Literature*, 29.

61) G. Kaufman, "A Problem for Theology: The Concept of Nature," *HTR* 65:3 (1972), 340.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고는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갖고 지혜를 찾도록 우리를 이끈다. 소발이 11장 10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재판을 행하시며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오늘날의 세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각인시키고 환경 파괴를 멈추며 기후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생태 공동체의 회복을 촉구하게 한다.

욥 12:22-25에서 하나님은 죽음의 그늘을 밝은 빛으로 변화시키신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권력까지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반전은 권력자들을 전복시키는 힘에 있고, 욥은 그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찬양하고 있다.⁶²⁾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은 자연인 욥은 이제 겸허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지혜와 권력을 찬양한다. “생명의 그물망”⁶³⁾으로 인해 전 지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연의 질서를 인식하며 생태 공동체를 보전하고 지혜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자연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써 사람들은 환경 파괴와 기후 이상에 따른 재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2019년부터 전 세계를 마비시키고 고통을 안겼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한다. 2023년 8월 22일 현재, 전 세계에서 확진된 코로나 19 환자 수는 6억 9000만 명이다.⁶⁴⁾ 코로나 바이러스의 총 무게에 관한 의견으로는 0.12-12킬로그램이 제시되고 있다.⁶⁵⁾ 최대치로 계산하더라도 12킬로그램의 바이러스가 사람들

62) Clines, *Job 1-20*, 304.

6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과 더불어 녹색희망으로: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교회 매뉴얼」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22), 62.

64) “Covid-19 Coronavirus Pandemic” (2023, 8, 22).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65) 이병철, “[잠깐과학]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게, 생각보다 가볍다,” 「동아사이언스」 (2022, 1. 9).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5295>.

의 생명을 앗아가고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은 파괴되었고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욕의 고난을 통해 볼 때, 코로나 19의 경험은 인류의 고난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탄소 중립을 포함한 생태학적 주제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물에게서 배우라는 욕의 지혜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증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부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탐구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동물들의 행동 양식과 생태계내의 공생의 섭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

땅은 가르친다. 바다의 고기는 설명한다. 지구의 기온상승은 기후 위기와 생태계 교란을 야기 시킨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생태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더 큰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환경 파괴로 인해 창조물의 고유한 가치와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 또한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실 것이다.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창조 선언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욕과 같이 자연을 통해 배우면서 말이다.

<주제어>

욕기 11-12장, 생태신학, 탄소중립, 생태 위기, 생태학적 문해력

<Keywords>

Job 11-12, Ecotheology, Net-zero, Ecological Crisis, Ecological Literacy

* 접수일 2023년 8월 11일, 수정일 2023년 8월 30일, 게재 확정일 2023년 9월 4일

참고문헌

- 구자용, “아웨, 동물의 주- 신학적 동물학에 대한 소고,” 「구약논단」 21:2 (2015), 205-235.
- 서정옥 외, “폐금속광산지역 토양오염정도와 혈중 납 노출 수준의 상관성,” 「한국 환경보건학회지」 48:4 (2022), 227-235.
- 왕대일,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욥 38:33a)- 창세기 창조 신앙에 대한지혜문학의 반성- 욥기 38-41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7:1 (2013), 103-129.
- 우택주, “기후붕괴와 구약신학적 응답,” 「복음과 실천」 44 (2009), 39-63.
- 임효명, “생태 위기 시대에 성서 읽기: 스바냐의 아웨의 날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8:3 (2022), 372-401.
- 채영근,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법학연구」 25:4 (2022), 63-99.
- 하경택, “소발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대답: 욥기서 12장 1-25절,” 「설교자를 위한 성경연구」 11:2 (2005), 13-37.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과 더불어 녹색희망으로: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교회 매뉴얼」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22).
- Clines, David J. A., *Job 1-20*, Word Biblical Commentary 17; Nashville, TN: Thomas Nelson, 1989.
- Dawkins, Richard., *The Selfish Gene*, The 30th Anniversary Edition, Oxford, Great Britain: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Gutiérrez, Gustavo., *On Job: God-Talk and the Suffering of the Innocent*, trans. Matthew J. O’Connell, Maryknoll, NY: Orbis Books, 2005.
- Habel, Norman C., *The Book of Job*, A Commentary The Old Testament Library Series; Philadelphia, PA: The Westminster Press, 1985.
- _____, *The Birth, The Curse and the Greening of Earth, An Ecological Reading of Genesis 1-11*, The Earth Bible Commentary Series 1; Sheffield, England: Sheffield Phoenix Press, 2011.
- _____, “Ecological Criticism,” *New Meanings for Ancient Texts: Recent*

- Approaches to Biblical Criticisms and Their Applications*, eds., Steven L. McKenzie and John Kaltner,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3, 39-58.
- Hope, Marvin H., *Job,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Yale Bible 15;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 Janzen, W. "Earth,"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2. New York: Doubleday, 1992, 245-248.
- Kahn, Richard V., *Critical Pedagogy, Ecoliteracy, & Planetary Crisis: The Ecopedagogy Movement*, New York, Peter Lang Publishing, 2010.
- Kaufman, Gordon., "A Problem for Theology: The Concept of Nature," *Harvard Theological Review* 65:3, (1972), 337-366.
- Murphy, Roland E. O. Carm., *Wisdom Literature, Job, Proverbs, Ruth, Canticles, Ecclesiastes, and Esther*, The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13;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1.
- Schifferdecker, Kathryn, "The Book of Job," *The Oxford Handbook of The Bible and Ecology*, eds. Hilary Marlow and Mark Harri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185-196.
- Sheehan, Jonathan, *The Enlightenment Bible, Translation, Scholarship, Culture*,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 Sinnott, Alice M., "Job 12: Cosmic Devastation and Social Turmoil," *The Earth Story in Wisdom Traditions*, eds., Norman Habel & Shirley Wurs, Sheffield England: Sheffield Academic Press Ltd., 2001, 78-91.
- Sweeney, Marvin A., *Tanakh: A Theological and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Jewish Bible*,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12.
- Tucker, Gene, "Rain on a Land Where No One Lives: The Hebrew Bible on the Environment," *Journal Biblical Literature* 116:1 (1997), 3-17.
- Van Hecke, Pierre, *From Linguistics to Hermeneutics A Functional and Cognitive Approach to Job 12-14*, Leiden & Boston: Brill, 2011.

White, Lynn T.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New Series* 155:3767 (1967), 1203-1207.

Wright, Andrew, *Christianity and Critical Realism Ambiguity, Truth and Theological Literac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3.

웹사이트

강건택, “[특과원 사진] 온난화에 눈 없는 뉴욕시…역대 최장 '눈 가뭄' 코앞,” 「연합 뉴스」 2023. 1. 23, <https://v.daum.net/v/20230122070707719>.

이미경, “英 의회단체 ‘언론 종사자, 더 큰 종교적 문해력 요청돼,’” 「기독일보」 2022. 11. 30, <https://www.christiandaily.co.kr/amp/news/102787>.

이병철, “[잠깐과학]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게, 생각보다 가볍다,” 「동아시아인스」 2023. 1. 9,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5295>.

최재천, “[정말 읽었니?#5] 최재천 교수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2023. 1. 12, <https://www.youtube.com/watch?v=SyGKk2a6OWs>.

“COP 26 The Glasgow Climate Pact,” 2022. 12. 1, COP26-Presidency-Outcomes-The-Climate-Pact.pdf, <https://www.ukcop26.org>.

“COP26: What’s in the Glasgow Climate Pact?” 2022. 12. 1, <https://www.aljazeera.com/news/2021/11/14/cop26-whats-in-the-glasgow-climate-pact>.

“Faith and Science: An Appeal for COP26,” 2022, 12, 1,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https://www.oikoumene.org/resources/documents/faith-and-science-an-appeal-for-cop26>.

“For a Livable Climate: Net-zero Commitments Must be Backed by Credible Action,” *United Nations: Climate Action*, 2022. 11. 30, https://www.un.org/en/climatechange/net-zero-coalition?gclid=Cj0KCQiAm5ycBhCXARIsAPldzoWdKsXu8cH16keusDH3Yja8ueEcCHHgk3IM6Nwkq117TYmvTcOxOkEaAow9EALw_wcB.

Robra, Martin, “It Was Prophetic for the WCC to Focus on Climate Change Already in 1990,”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2023. 4. 10, <https://www.oikoumene.org/news/it-was-prophetic-for-the-wcc-to->

focus-on-climate-change-already-in-1990.

Silk, Mark, “Pope Francis Pushes a New Theology of Climate Change,” *Religion News Service*, 2022. 12. 1, <https://religionnews.com/2019/09/03/pope-francis-pushes-his-climate-theology>.

The AsiaN Editor on 9 August 2017, 2023. 1. 12, “Jane Goodall and Choi Jae-chun: Words for the Next Generation on Humanity and Nature,” <http://www.theasian.asia/archives/99692>.

<https://www.aljazeera.com/news/2021/11/14/cop26-whats-in-the-glasgow-climate-pact>, 2022. 12. 1.

https://www.un.org/en/climatechange/net-zero-coalition?gclid=Cj0KCQiAm5ycBhCXARIsAPldzoWdKsXu8cH16keusDH3Yja8ueEcCHHgk3IM6Nwkq117TYmvTcOxOkEaAow9EALw_wcB, 2022. 11. 30.

<https://www.youtube.com/watch?v=09geJT-ZAm4>, 2023. 1. 10.

<초록>

탄소 중립과 생태 위기 시대의 욕기 읽기:

소발의 담화를 중심으로(욕 11-12)

박혜경

(대만장영대학교 부교수)

현재 우리는 이상 기후, 생태 위기와 코로나 19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다. 많은 국가의 정부들을 탄소 중립 배출을 위해 노력하며 전 세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욕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건네준다. 만약 욕이 제시한 대로 자연의 질서를 이해한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자연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연을 향한 뜻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탄소 중립과 생태학적 맥락에서 욕기 11-12장을 읽으면서 생태학적 성서 신학을 정립하고자 한다. 욕의 친구들은 욕의 고난이 지혜와 겸손이 부족해서 생긴 것으로 여긴다. 욕기 11장의 소발의 도발적인 질문은 욕을 하나님을 모르는 문맹자로 묘사한다. 그러나 욕은 유머를 가지고 소발의 말에 응답한다. 오히려 욕은 12장에서 동물들, 공중의 새들, 땅, 바다의 물고기들로부터 지혜의 본성을 깨달으라고 강권하고 있다. 욕은 자연 중심적인 사람으로서 대 자연의 뜻이 지혜임을 설교한다.

필자는 오늘날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의 의미와 현상을 살펴서 생태학적 문해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생태학적 성서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면 관계상 욕기 11-12장의 구조와 내용을 살피고 욕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자연에 대한 이해가 지혜의 근본이 됨을 강조하여 오늘의 탄소 중립과 생태 위기 시대를 위한 성서 읽기를 제시한다.

<Abstract>

A Reading of Job 11-12 in the Era of Net-zero and Ecological Crisis

Assoc. Prof. Hye Kyung Park
(Chang Jung Christian University, Taiwan)

Today, we experience abnormal climate, ecological crisis, and the COVID-19 pandemic. At the same time, we recognize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s to achieve the net-zero emissions worldwide. In this situation Job resonates deeply with us. As suggested by him, if we understand the order of nature, we can learn from nature about sustainable development. In addition, we can obey the providence of God by reducing carbon emissions and reaching net zero. Thus,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today's ecological biblical theology through a reading from Job 11-12 in the context of net-zero and ecology. Job's friends accuse him of a lack of either wisdom or humility for his suffering. The provocative questions of Zophar in Job 11 describe Job as an illiterate person who does not know God. However, Job sarcastically responds to Zophar's speech in Job 12. He advises people to learn from the animals, the birds of the air, the earth, the fish of the sea, and realize the natures of wisdom. Job is a nature-centered person who knows the will of Mother Nature.

The researcher describes the climate crisis in today's world,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cological literacy. This paper seeks to understand the wisdom of God and focus on ecological biblical interpretation. On account of limited space, it consists of the structure and genre of Job 11-12. The researcher tries to analyze ecological hermeneutics of Job and to carry out research on the living scripture of God. Job clearly describes the providence of God in the orders of nature as the utmost wisdom.

